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 남원시, 시정 운영 빛났다

'제19회 순창장류축제' 10월 11~13일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올해로 19회를 맞는 '순창장류축제'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발효테마파크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순창장류축제는 전통과 현대·발효 기술과 미래놀이문화가 어우러진 세대 공감형 축제로,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도전 다함께 장류 만들자',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발효나라 1997' 등이 준비되었으며, 특히 11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은 축제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축제장을 가득 메운 국화꽃 경관과 차별화된 체험 등 다채로운 즐



제19회 순창장류축제 포스터

길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가격의 향토 음식들이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할 화려한 공연 라인업도 관심을 모은다. 백지영, 부활, 박서진, 김태연, 나미에, 법진, 온리원오브, 차타 등 트로트부터 발라드, 록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후끈 달궈 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가을 순창군에서 열리는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장류축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축제 역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형 기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서 기초부문 대상 수상

남원시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차별화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사업과 지역축제의 글로벌화 등의 탁월한 시정 운영으로 기초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 법인단체로 올해 8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펼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민간인 등 6개 부문(국정, 광역교육, 광역 지방의회의원, 기초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의회의원, 민간부문) 44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문화 축제인 춘향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글로벌 축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K-패션, K-푸드, K-아트 등 대중화를 선도하였으며 2017년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로 재탄생시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남원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출생부터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완성하여 지역인재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선8기 대표 시책으로 읍면동장이 매일 소

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고독사 방지 등 지자체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남원 대표음식 개발, 남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 개선, 민선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제도 최우수(SA)등급 획득 등 우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최 시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특화형 재생사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연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남원시 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발전 대응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된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공적을 인정하여 시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9월 2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순창군에서 추진해 온 공정을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4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9일간 22개 부서 및 5개의 출차·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손종석 의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버블구 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순창=이양형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김광석 35사단장과 환담

현안·행사 정보 공유·소통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남원시청을 방문한 김광석 35사단장과 환담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환담에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의 홍보와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7733부대장과 7733부대 3대대장도 동석해 남원시 현안과 10월 행사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올해 드론



축제에 도내 학생과 청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을 강조하며, "장병들도 드론제전을 통해 드론과 로봇을 접할 수 있도록 군부대

단체 참관 및 군 홍보부스 운영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35사단장은 "행사가 청소년들과 도내 장병들에게 드론과 로봇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장갑차 등 군장비 전시 및 전시관에 홍보부스 조성 등 국제드론제전을 통해 군부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남원 누리시민 제도를 군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누리시민 모집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홍보팀, 10월 3대 축제 이색 홍보 나서

남원시 홍보팀에서는 10월 3대 대표 축제와 관련해 온·오프라인 이색 홍보를 펼치는 등 브랜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3대 가을 대표 축제(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남원 문화유산 여행)가 개최됨에 따라 문화와 역사, 미래 산업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TV광고, 지면광고, SNS 이벤트 홍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축제 홍보를 추진하고 KTX 모니터, 주요도시 터미널, 용산역, 육외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대도시 관광객에게 축제를 알리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시 공식 유튜브 남원시 TV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다양한 컨셉의 사진 홍보물을 업로드, 축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9월부터 축제 기간까지 재미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많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T-MAP 내비게이션 음성광고도 진행하는 등 3대 축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



다.

또한 전남 전북 고속도로 휴게소 26개소에 3대 축제 현수막과 축제 전단지 등을 비치하고, 발품을 팔면서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남원을 알리고 있다.

이밖에, 홍보팀에서는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내는 물론 지리산권 초중고, 인근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축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10월 축제 방문을 독려하고 있다.

홍보전산과 홍보팀 과장은 "오는 10월 남원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방문과 이벤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금 전달

임실군이 지난 24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모금한 아가사랑 후원금을 지원받아 지사면에 거주하는 정OO(6세) 군에게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46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육명진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환아 가족에게 증서와 후원금을 전달하고 패유를 기원했다.

정 군은 지적장애 아동으로 유착성 중이질환으로 인한 청력소실, 성장호르몬 결핍, 상세 불명의 간헐성 사시 등 5종류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추후 안검 내반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급하는 아가사랑후원금은 매년 저소득층의 선천성, 희귀난치성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축제 열차' 10월 3~5일 운행

임실군이 내달 3일부터 열리는 2024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맞춤형 관광상품인 '임실N치즈축제 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상품은 ITX-마을(축제 전용 열차)과 S-트레인(남도해양관광열차) 특실로 운행된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치즈의 고장 임실의 대표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중심으로 옥정호 출렁다리과 보물과도 같은 신비의 섬 봉어섬 등 임실의 명소를 돌

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상품은 메인 일정인 임실N치즈축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것으로 전망되는 임실N치즈축제를 만끽할 특별한 기회이다.

해당 상품은 출발일 기준 1일 전까지 흥익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11번가, SSG닷컴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임실N치즈축제, 축제전을 열다



심 민 군수는 "열차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열차 상품 운영으로 임실 관광의 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열차 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